

# 완도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본궤도 진입

### 문체부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통과에 이어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국비 1,442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기관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성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건축 및 전시 분야 실시설계 후 2026년도에 착공, 2029년 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완도군 장좌리 일원

(4만 5천㎡)에 조성되며, 완도의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시, 교육, 체험 콘텐츠, 연구 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22년 전라남도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서 7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사업 대상 부지 내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 변경 허가(문화재청), 11월 국립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문체부),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등 숨 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기재부와 해수부, 문체부, 국회, 전남도 등 관계기관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사업 추



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피력하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이 건립되면 완도 해양치유센터와 국립난대수목

원 등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퍼즐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면서 "예타 통과 및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호남권 군단위 최초 보건소 3개과 확대 운영

강진군이 호남권 군 단위 최초로 보건소 조직을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 개편해 보다 전문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강진군은 지난 1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군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 3만2,722명 중 38%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맞춰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지원을 위해 노인건강과를 신설했다.

노인건강과는 만성질환관리팀, 마음건강팀, 치매관리팀으로 구성돼 고령인구의 만성질환, 신체활동 감소, 치매·우울 등 노인 건강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이동 물리치료서비스 방문 사업, 찾아가는 우울증 선별검사 사업, 노인 자살예방사업 등 어르신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대두, 글로벌화로 인한 전 세계적 확산 등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업무 조정을 통해 기존 방역정책과를 감염병관리과로 개편했다.

보건사업과는 모자보건업무와 보건기관 진료서비스, 인력 및 시설관리 등 보건사업을 총괄 관리·지원한다. 이에 따라 강진군보건소는 보건사업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 3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 해남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정부 예산 450억원

해남군은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비가 2024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밝혔다.

탄소중립 클러스터는 태양광 사용 후 폐열의 재처리 기술 연구개발과 실증화, 판로 개척 등 전주기 지원시설이다.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3만 4000㎡ 면적에 조성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R&D(연구개발) 시설과 실증 테스트베드, 시험·인증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환경부가 해남군을 녹색융합클러스터사업 대상지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 기본구상계획 용역 실시를 시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하면서 사용후 폐열 발생량 또한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2029년에는 전국적으로 6796t의 사용후 폐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소중립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태양광 사용후 폐열 재활용 및 저이용 기반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 2024년 신청 가능 연령...1949. 1. 1. ~ 2004. 12. 31. 출생자

진도군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행복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해 사업년도 기준 농어촌 지역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연간 2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5억8,200만원을 투입해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94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농어업인 2,91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20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1948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에서 2024년에는 1949

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로 변경됐다.

문의는 진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9)으로 하면 된다.

군은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나아가 미래 여성농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농어업

인 해당 여부 등 지원자격을 검토하는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2024년 행복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와 문화혜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이용권(바우처)은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 '장흥물축제'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됐다...문체부장관상



### 독창적인 콘텐츠와 내실있는 행사 운영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 기여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는 매년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경쟁력 높은 지역 축제를 평가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한다.

전국 1200여개 지역축제 중 광역 예선을 통과하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종합평가해 지정하는 65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가 된

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독창적인 콘텐츠와 내실있는 행사 운영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종합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3개 축제만 최우수축제로 지정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마케팅,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축제가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군민의 봉사와 지지, 공무원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올해 장흥 문화·예술·관광 부흥의 중심인 물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